통기타 동호회 'PHILOS(필로스)

왼쪽부터 안근원(49)·한명석(56)·김용표(51)·고광윤(43)·임인식(55)·홍복희(42)·김연숙(47)·박창수(49)·김은식(52)·조우현(47)·정호중(41)회원.

기타 둘러메고 떠나는 '시간여행'

40대 이상 기타를 좋아하는 이들의 활동 공간

자기계발·사회 봉사활동으로 삶 재발견

매달 셋째주 금요일 정기 콘서트

'7080세대' 하면 떠오르는 문화 키워드가 있다. 청바지와 통기타.

자유로운 영혼과 아름다운 감성을 노래하던 7080세대들이 더 나은 미래를 노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통기타의 향수와 추억을 공유하고 있는 빛고을 통기타 동호회 'PHILOS(필로스)' 회원들이 그 주인공 이다.

1998년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결성된 동호회는 2003년 인터넷에 카페(http : //cafe.daum.net/philoguitar)를 개설하면서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는 1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고, 20여명의 회원은 정기 모임과 친목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매달 셋째 주 금요일에 각자 연습한 곡들을 선보이는 정기 발표회를 갖는 이들은 매달 첫째 주 토요일에는 가족들과 함께 시내 근교 등을 찾아 야유회를 즐기면서 삶의 여유를 누리기도 한다.

실력과 상관없이 음악과 기타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필로스 회원이 될 수 있지만 자격조건이 하나 있다. 40대 이상의 중년들 만이 필로스 회원으로 활동 할 수 있다.

한명석(56)씨는 "마땅한 놀이 문화 없이 화투나 음주 등이 주를 이루는 기성문화 대신 자녀들과 젊은 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목표 지향적인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며"음악활동 및 공연 봉사활동 등 다양한 문화, 예술활동을 통해 여가를 즐기고 친목을 다지고 있다"고 밝혔다.

필로스 회원들은 동호회 정기 모임 외에도 '담양 대나무 축제 공연','산사 음악회', '자선 음악회'등에 출연하면서 자기계발과 함께 사회 봉사활동도 겸하고 있다.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기타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박창수(49)회장은 "필로스라는 동호회 이름에는 사랑과 지(知)의 의미가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다"며 "부지런하고 고상한 취미생활을 통한 자기 계발과 예술과 기타를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배워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씨는 "과거의 문화를 폄하 하고 잊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 세대의 문화를 끌어나가면서 진한 향수를 느낄 수 있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다"며 "우리 세대의 문화 구심체로서 건전한 문화를 이끌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먹고 사는 것에 바빴던 중년의 회원들은 동호회 활동을 통해 힘겨운 사회생활을 견디느라 잊고 지냈던 자기 자신과 음악에 대한 사랑을 재발견하기도 한다.

필로스의 막내 정호중(41)씨는 동호회 활동을 시작한 이후 기타 연주로 하루를 열고 있다.

"대학시절 기타 연주를 하기도 했는데 8개월 전 필로스에 가입하면서 다시 기타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기타를 들고 화장실에 가고 차에 기타도 싣고 다니면서 짬짬이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회원분들이 인간적이시고 나이들이 있으셔서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인생에 대한 연륜도 배울 수 있고, 회원분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자극받기도 한다"며 "필로스 활동을 통해 취미생활은 물론 인생에 대한 공부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통기타가 흔히 남자들의 문화로 여겨 졌던 만큼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여성 회원은 3명에 불과하지만 이들 여성 회원들은 열성적인 활동을 통해 동호회 여성 파워를 과시하고 있다.

첫 애를 낳고 남편에게 기타 선물을 받았던 홍복희(여·43)씨는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먼지 쌓인 기타를 다시 잡게 됐다.

"집안일과 동호회 활동을 병행하느라 힘들기도 하지만 그만큼 더 활동적으로 부지런하게 움직이게 됐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서본 적이 없는데 회원분들의 든든한 응원 속에 공연 무대에 서보기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짜릿한 성취감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김연숙(여·47)씨는 동호회를 통해 "나를 즐겁게 하는 친구를 얻었다"고 말한다.

피아노 연주를 즐겼던 정 씨는 무엇인가를 새로 해보자는 생각해 기타를 잡은 후 매일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2~3시간을 기타와 씨름하면서 실력을 키우고 있다. 김 씨는 "무디어진 정서와 감정이 살아나면서 인생이 즐겁고, 아까운 시간을 허비할 틈이 없어 우울하거나 외롭다는 생각을 할 틈이 없다"며 "그날 감성에 따라 즐거운 노래,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삶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고 기타 예찬론을 폈다.

아마추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아름다운 가사를 통해 감성을 표현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지만, 회원들 중에는 음악과 밀접한 생활을 하고 있는 베테랑들도 있다.

조우현(47)씨는 쟁쟁한 실력파 가수들의 등용문이었던 대학가요제 출신이다. 대학 재학시절인 1982년 대학가요제 본선에 진출했던 조 씨는 회사생활을 할 때도 축제가 열리면 마이크를 잡고 실력 발휘를 했었다. 조 씨는 동호회 활동을 통해 다시 예전 대학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살고 있다.

"큰 돈 들이지 않고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데다 나의 장기를 활용해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등 보람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유기적인 관계 속에 마음의 여유도 얻고 그만큼 젊음도 유지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대한가수협회 광주 지회장을 맡고 있는 임인식(55)씨도 필로스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